

제주사회복지신문

>2019년 9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43호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9 제주 나눔 대축제

희망으로 함께한 20년, 복지로 물들이는 20년

오는 7일 오전 10시 제주시민복지타운서 열려
1000인분 비빔밥 나누기, 나눔콘서트 등 풍성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꾸며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중)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9 제주 나눔 대축제'가 '희망으로 함께 한 20년, 복지로 물들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사회복지유공자 시상, 기부금·품 전달식,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기념 퍼포먼스 등의 내

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9 제주 나눔 대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시민복지타운 일대에서 진행된다.

'2019 제주 나눔 대축제'에서는 60여개 나눔 홍보·체험부스 운영을 비롯해 기부 받은 식품을 포장하는 '나눔상자 만들기'와 '1000인분 비빔밥 나누기-삼촌 밥 먹여 갚씨', 기부 받은 책을 나누는 '나눔 도서관'과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하는 '나눔 장터', 드론항공기·RC카 경진대회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진다.

특히, 제주도내 사회복지

2019 제주 나눔 대축제

나눔실천행사

- 1000인분 비빔밥 나누기 '삼촌 밥먹여 갚씨'
- 나눔상자 만들기

상설부스 운영

- 나눔체험마당, 나눔홍보마당
-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나눔장터'
- 나눔도서관

부대행사

-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 사회복지예술마당
- 드론항공 RC자동차 경진대회
- 강통열차 나눔여행

더희망코리아와 함께하는 나눔힐링콘서트

-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교수
- 소프라노 유경진
- 크로스오버그룹 라온
- 개그플러스

※ 학생자원봉사 인증 : 행사기간 중 축제 모니터링단 운영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에게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2시간 인증' 해 드립니다.

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공연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무대인 '사회복지 예술마당'과 세계적인 첼리스트 백진주 교수와 소프라노 유경진 등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나눔 힐링콘서트'

도 진행돼 행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제3회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제주 사회복지역사관'을 오픈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1999년 이전 제주 사회복지현장 옛 사진을 모집하고 있다.



아이들이 전하는 희망의 멜로디

◀ 구좌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난달 3일 해녀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 '미국시애틀 페더럴웨이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한 여름밤의 꿈'을 개최했다. 이 날 연주회에서 구좌청소년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지면소개

- 종합 2면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의견 수렴 토론회
- 사회복지소식 4면
하모니카 연주 등 나눔봉사 실천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법률홈닥터
- 기획 7면
시설탐방(108) - 제주시일시청소년원(이동형)



누구에게나 통(通)하는 복지 '제주복지통'

Google Play 제주복지통 검색



제주복지통 한눈에 보기

- 1,084개 분야별·지역별 사회복지시설정보
- 일자리·육아·중독·주거·사회보험 콜센터
- 노인·아동·장애인·가정·학교폭력 긴급전화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 온라인 식품기부 푸드뱅크
- 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착수

도, 지난달 21일 타당성 검토 연구 착수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21일 도청 환경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았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동안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과 설립 방향 및 타당성 검토,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운영 모델 및 운영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고령사회의 도래와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의 사

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그동안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 경쟁과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의 장으로 변화되어왔다.

이로 인해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하락하는 등 문제가 제시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적극적으로 재편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화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이해관계자 편의제고,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담아내기 위한 플랫폼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이용자들의 지역·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공공성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 등 4개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조성됐으며, 제주를 포함해 7개 지자체가 내년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제22회 제주수어경연대회 성황



한마음팀 대상 수상 영예

한마음병원 '한마음'팀이 제22회 제주수어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회장 박춘근)는 지난달 17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22회 제주수어경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수어, 마음의 전송버튼을 누르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 날 수어경연대회는 12개팀 150여명의 참가자와 70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노래, 연설,

연극 등의 분야에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가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상= 한마음병원(한마음) ▲금상= 공립탐라어린이집(탐나는사람들) ▲은상= 샘솟는 지역아동센터(수어천사) ▲동상= 꽃밭 ▲장려상= 신산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커다란 나무), 이도초등학교 1학년(아이두 I DO) ▲인기상= 삼공주 ▲심사위원상=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실버웃음꽃).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2억원 규모 나눔실천 눈길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는 지난달 1일 오전 11시부터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도내 양돈농가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이웃사랑 한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사진>

이 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는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생산한 돼지고기 36톤



(2억원 상당)을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200개소에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년보다 5배 이상 규모를 늘려 진행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는 지난달 8일 '3분기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총4시간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6월 26일 새롭게 개정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및 자원봉사 실적인증 가이드라인 이론교육과 VMS DB시스템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양성교육은 25명 신규인증관리요원 위촉, 2명의 보수교육 대상자가 이수를 했으며 4분기 교육은 10월과 12월에 진행된다.

9월 다양한 교육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는 9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8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사회복지아카데미 3분기 법정 의무교육 완전정복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인권·성희

롱예방·개인정보보호법 등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의 자체 진행이 어려운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2019년 사례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의 사례관리 방법을 공유하며, 사

례관리 운영 과정에 대한 전문 슈퍼비전을 받음으로써 사례관리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례발표, 공개토의, 슈퍼비전 등으로 진행되며, 권진숙 한국사례관리학회 고문과 양윤숙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이 슈퍼바이저로 참여한다.

“사회복지현장 옛 사진을 찾아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는 오는 9월 30일까지 사회복지현장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해 '제주 사회복지현장의 옛 사진'을 찾는다 고 밝혔다.

옛 사진은 오는 9월 7일 다가오는 '사회복지의 날 20주년'을 기념해 오픈 예정인 '제주사회복지 온라인 역사관'의 자료로 등재할 계획이다.

제출 사진은 1999년도 사회복지 프로그램 진행 모습, 봉사활동 모습 등 제주 사회복지현장의 모습이 다.

제출은 신청서와 함께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로 방문하거나, 협의회 웹하드(아이디: jejubokji3784 비밀번호: 702-3784) 또는 이메일(jejubokji@hanmail.net)로 전송하면 된다. 문의: 070-4726-8823.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②

느영나영문화예술단(문화·예술)

하모니카 연주 등 나눔봉사 실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중)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느영나영문화예술단(단장 김영중)은 지난달 4일 산지천 광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레공연활동을 실시했다.<사진>

이 날 공연은 댄스스포츠, 하모니카·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재능기부공연으로 진행됐다.

느영나영문화예술단은 2012년 7월, 60대 전후

20여명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결성된 단체다. 이들은 공연 봉사활동과 거리공연 등의 예술 활동을 통해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도내 마을 곳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공연 ‘찾아가는 나눔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30여명의 단원

들이 월 2~3회의 재능기부공연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고 온정과 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중 단장은 “그동안 봉사활동 장소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대한노인회 제주지회회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경로당 선정의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사정신을 갖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든 느영나영문화예술단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로당 공연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한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20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를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정제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해 기업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해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대상은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오는 9월 20일까지 사회공헌을 진행



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이메일(jejubokji@hanmail.net)로 제출 후 원본은 방문 또는 우편등기 발송하면 된다. 안내자료 및 서식은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가 진행되는 1차 지역심사(10월)와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는 2차 중앙심사(11월)로 진행된다.

인정기업에게는 1년간 지역사회공헌 표식(마크)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이는 매년 갱신을 통해 관리된다.

인정 기업 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경영 상담(컨설팅) 비용 지원 및 기업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식/마/당

(무순)

심리적인 안정 찾기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원화자)는 지난달 1일과 8일 이틀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장애인일자리아업 참여자들과 함께 돈내코 계곡으로 하계 나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하계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재활의지를 다시 한 번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노력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과 한국치매예방협회 제주지부(대표 강석범)는 지난달 13일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

강석범 대표는 협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관리사업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하계 수련회 행사 마련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9일 제주렛트론파크에서 거주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계수련회 행사를 개최했다.

송죽원 관계자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주경마장에 있는 포니위터파크로 나가서 자연의 정취도 만끽하고 물놀이를 하는 등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왔다.”고 말했다.

공동체 의식 함양



제주소나이그룹홈(대표 김완숙)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인 우리가 부르는(Blue) 푸른바다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들이 환경정화를 통해 애국심과 사회적 책임감, 환경보호의식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자기계발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열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은 지난 7~8월 구좌·조천읍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증진프로그램 ‘힐링스토리’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송댄스와 전통놀이로 진행되었으며, 구좌읍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조천읍은 함덕에 위치한 센터에서 마련되었다.

제1차 운영회의 진행



제주시권역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이미정)는 지난달 26일 센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운영회의에서는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주거비 직접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센터는 주거불안정 가구등에 주거비서비스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소/식/마/당

(무순)

의욕증진과 유대감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는 지난달 9일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의 근로의욕을 증진하고 유대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름야유회를 실시했다.

야유회에 참석한 참여주민은 “무더운 여름날씨에 지쳐있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아동 정서·사회성 발달 도모



홍익영아원(시설장 고봉운)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아이들의 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기 진행하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아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기 아동들이 다양한 야외놀이 활동을 통해 인지 및 정서·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 인식개선 앞장



제주애덕의집(원장 허윤정)은 지난달 9~10일 도내 중학생 22명이 모인 가운데 제2기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배움 그리고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는 2018년도에 시작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고 장애인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장애, 비 장애 구분 없는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재능기부 봉사활동 선택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원장 정은수)은 지난달 8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을 방문해 위문공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위문공연은 음악영재 학생들의 재능나눔 기부 봉사활동으로 이뤄졌으며, 판소리 영재 학생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플루트, 첼로, 기악양상블 연주, 합창 등 영재수업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여름방학 가족문화체험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형자)는 지난달 3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의 지원으로 센터아동과 가족 등 참여한 가운데 여름방학 나들이 가족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제주위터월드를 다녀왔다.

센터 관계자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를 이기고 맞벌이 가족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아동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경 검역교육·홍보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2일 한국어교육을 수강하는 체류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에서 ‘찾아가는 국경 검역교육 및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내용으로 입국 시 반입금지품 등에 대한 안내로 진행됐다.

건강한 여름 나기 캠프



성자현(원장 진유신)은 지난달 8~9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원한 여름나기 여름캠프’를 실시했다.

여름캠프는 신화역사 워터파크 물놀이를 시작으로 영화관람, 아쿠아플라넷제주를 관람으로 꾸며졌다. 성자현 관계자는 “여름캠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장애인들이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1인 장년층 우울증 예방 기대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12월까지 월 4회 50세 이상 1인 장년층을 대상으로 Na애찬 밀반찬 배달사업을 진행한다.

아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호진)가 주최하고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1인 장년층의 우울증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정서적인 서비스 제공과 영양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실시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소장 최희순)는 지난 7월 26일 탐동 광장일원에서 2019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이음-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날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시화미술작품 전시, 시민공감마당,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홍보부스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장애인문화예술을 알리고 소통하는 공감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유대감 형성 기회 마련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윤인노)는 지난 7월 19~21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쉼터 구성원간 유대감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연으로 떠나는 가족여행을 진행했다.

쉼터 관계자는 “레저스포츠활동, 자연탐방활동 등을 통해서 서로간의 유대감을 다지고 그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바깥나들이 진행



제주시 삼양동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정윤정)는 지난 7월 21일 삼양동 지역 일대에서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일일 바깥나들이’를 진행했다.

정윤정 회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절학교 프로그램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직무대행 양정심)은 지난 7월 22~30일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계절학교 ‘방학을 부탁해!’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성교육 등의 교육활동과 영화관람 등의 지역사회 문화체험, 드라이플라워 액자 만들기, 천연제품 만들기, 가족공예, 라인댄스 등의 체험활동으로 다양하게 이뤄졌다.

시론

웰니스와 자기 사랑, 자기책임

웰니스(Wellness)의 사전적 의미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의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상태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의 주관이나 환경에 따라 웰니스의 의미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웰니스 의학자 John W.Travis는 웰니스를 ‘자기책임과 자기사랑’이라는 2개의 교각에 의해 지탱되는 다리와 같으며, 자기책임과 사랑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였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상태

다. 자기책임과 사랑은 잘못 생각하면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진정한 의미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책임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 건강관리 패턴을 개발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선택

하고 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며,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환경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사랑의 의미는 나의 개성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개성 역시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삶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삶의 활력을 감사하게 여기며, 생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열풍 중의 하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일이다. 800키로라는 먼 길을 한 달 이상을 오로지 걷는다. 배낭하나가 전부인 짐으로 완주하려면 한 달 이상을 버티면서, 걷고 또 걷는다고 한다. 그들은 서로 걸으면서 “부엔 까미노(Buen Camino), 좋은 길 되세요.”라는 말을 서로 건네면서 그 고생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걷는 이유는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선택,

책임, 자기사랑 등에 대하여 고민하고, 견고, 생각하고, 또 걸으면서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어쩌면 그들 인생의 웰니스(Wellness)를 위해

좋은 길 걷기로 삶의 모델 찾아

서 ‘좋은 길을 걷기’ 위한 삶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치 부재의 시대이다. 물질이 만능이며, 자기책임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고, 자기사랑이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시대적 흐름이 만연하다. 잠시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며, 진정 내가 원하는 ‘나의 웰니스’, 나의 책임과 나의 사랑에 대하여 나의 삶의 터전인 올렛길이나 숲을 걸으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몰입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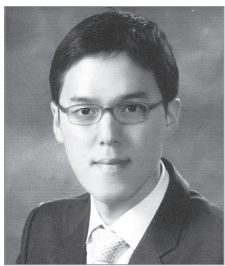


현인숙

제주한라대학 간호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64

한라산 등반시의 음주?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우리 헌법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인정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을 통해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산을 오르며 좋은 경치를 감상하다가 술을 한잔 마시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을까?

자연공원법에서는 일정한 부

분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의미하는데 한라산을 비롯한 명산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음주는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이며 위반 시에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규정은 2017년 말에 개정되어 반영된 것인데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은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과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시설인데 국립

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전국 21개 공원, 81개소의 탐방로·산 정상 일원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정된 대상에 한라산 국립공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에서의 음주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한라산 탐방로와 산 정상 지점에서의 음주행위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등반 시 가벼운 술 한 잔이 행복을 더해줄 수 있다는 의견과 안전사고 예방 및 타인에 대해 배려 차원에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법은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칼럼

나눔에 대한 생각

어릴 적 이야기다.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었다. 식사 때만 되면 나는 많이 먹기 위해 욕심을 부렸다. 동생의 몫까지 뺏어 먹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동생은 엄마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면 나는 엄마로부터 야단맞기 일쑤였다. 이처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에야 식사는 끝났다. 그때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심이 있다. 욕심은 무엇인가 바라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다. 욕심이 없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욕심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그렇지만 욕심이 넘치면 탐욕이 된다.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오늘날에는 더욱 심하다. 더 많은 것을 갈구하려는 한 사람의 탐욕은 공동체 사회까지 짓누른다.

그래서인지 요즘 따라 ‘나눔’이 더욱 빛나 보인다. 넘쳐나는 탐욕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른다. 어려운 이웃과 결연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의 모든 삶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공유의 가치

마치 땅속에서 따뜻한 물이 솟아나듯이 사람들 가슴에서도 온정이 솟는다. 온정은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 나눔이야말로 사회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기둥이다.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생명수와 같다. 너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다.

그래서 나눔은 이제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자선적 개념도 아니다. 책임의 수준을 넘어 함께 더불어 사는 공유의 가치다. 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철학을 정책이나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나눔의 의미는 기꺼이 주려는 고귀한 품성에서 찾을 수 있다. 만족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베푸는 순수한 행위이다. 계산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마음에서 우리나라다. 행복 그 자체만을 얻고 있다.

이달에는 사회복지계에 굵직한 행사가 있다. 오는 7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2019 제주나눔대축제’가 함께 열린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20돌을 맞는다. 20돌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그만큼 나눔의 가치를 공유의 가치로 성숙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나눔을 공유의 가치로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어린이가 하얀 도화지에 순수한 마음을 그려내듯이 어른들의 나눔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한다. 사회복지의 날 주제처럼 희망으로 함께 한 20년, 공유의 나눔으로 물들어갔으면 한다.



한영조

제주숲치유연구센터 대표

시설탐방

(108)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이동쉼터 ‘버프’ 청소년 지킴이 ‘톡톡’

2015년 설립...음주·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

거리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때로는 편안한 친구로 청소년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소장 김은영)의 이야기다.

쉼터는 거리의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들어보고,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문을 열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이동쉼터로 사용될 버스를 설계하고, 이동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도외지역 시설을 답사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제주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버프’를 탄생시켰다.

버스(Bus)와 프렌드(Friend)의 줄임말인 버프는 매주 화·수·목·금요일 오후 18:00~24:00까지 아이들을 위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버프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식사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함께 자립을 위한 다양

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약물·금융·범죄 등 거리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성폭력 예방, 금융 등 다채로운 내용의 교육이 진행되는 거리학교와 네일아트, 가죽공예 등으로 꾸며

하루 평균 30여명 찾는 등...이용 만족도 높아 거리학교, 학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 운영도

진 문화교실을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거리 아웃리치 및 패트룰,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귀가지원, 동아리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해 가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외부강사를 초청한 성인지갑수성 강의도 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연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례관리팀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자립을 할 때까지 도와주고 있다.



▲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은 위기에 처한 거리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자격증 시험을 볼 때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던 아이들도 믿고 기다려주면 결국은 해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성취감을 얻고, 스스로 자신의 꿈을 그려나가게 된다.”며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모

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러한 쉼터의 노력은 긍정적인 변화로 찾아왔다. 차츰 버프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35~40명의 청소년들이 버프를 찾고 있다. 누적 인원만 10000명 정도다.

처음 마음의 문을 열기 힘들었던 아이들도 버프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은영 소장은 “학교 밖 청소년·가출청소년들의 경우 음주·성범죄·학교폭력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이러한 문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대다수의 원인이 아이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불안정한 가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에는 전국 이혼율 1위다. 이는 가정해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김승지 기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소개 ② 일배움터

원예·카페·농산물 사업 호응

▲ 일배움터 소개

일배움터(대표 오영순)는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를 슬로건으로 청년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일배움터는 원예사업, 카페사업, 건조농산물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발달장애인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 왼쪽부터 원예사업 꽃화분, 농산물사업 ‘탐라지오’ 제품모습.

▲ 원예사업

원예사업은 거리화단용 꽃, 허브를 재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관공서, 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전국꽃매달서비스, 원테이블 원플라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교육부 인증 진로체험기관으로 선정돼 평생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거리화단용 꽃은 사전상담과 주문예약이 필요하다.



▲ 청년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플로베’ 모습.

▲ 카페사업

2012년 9월 제주 최초 청년장애인바리스타 카페 플로베(flove) 1호점(제주시 도령로 113 SKT제주사옥 1F)을 시작으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 앞 2호점인 아이 갓 에브리thing(I got everything)을 개점했다.

일배움터는 발달장애인 맞춤 바리스타양성 교육을 실시해 청년장애인바리스타를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5명의 발달장애인이 추가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 농산물사업

‘탐라지오’는 제주에서 재배한 품질 좋은 농산물을 깨끗이 손질하고 건조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우수한 품질을 위해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에 맞춰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품목은 건조농산물 탐라지오 선물세트와 고사리, 취나물 등이 있다. 원예와 건조농산물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등록되어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적이 된다. 쇼핑몰 =ilbaeumteo.co.kr



희망으로 함께한 20년

복지로 울들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9 제주 나눔 대축제

2019. 9. 7.(토) 10:00~17:00 / 제주시민복지타운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2019. 9. 7.(토) 11:00

축하공연,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 기념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다함께 하는 다짐 등
※ 기념식에 참가하시는 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2019 제주 나눔대축제」

2019. 9. 7.(토) 10:00~17:00

나눔실천행사

- 1000인분 비빔밥 나누기 '삼촌 밥먹영 감사'
- 나눔상자 만들기

상설부스 운영

- 나눔체험마당, 나눔홍보마당
-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장터'
- 나눔도서관 (도서기부, 교환, 무료배부 등)

부대행사

-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사회복지예술평
- 드론항공 RC자동차 경진대회
- 강동열차 나눔여행

더희망코리아와 함께하는

나눔힐링콘서트

-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교수
- 소프라노 유경진
- 크로스오버그룹 라온
- 개그플러스

※ 학생자원봉사 인증 : 행사기간 중 축제 모니터링단 운영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에게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2시간을 인증'해 드립니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후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중부로타리클럽 MIAPPEAL

주관: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주)재밋섬 파크

나드리 뷔페

애월아빠들

JinBio

더희망코리아

제주사회공헌네트워크